

2012
December 28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Weekly Healthcare Industry Trends



포커스

'12~'20년 EU 이헬스 실천계획

정책동향

- [미국] 미국 1차 진료의사 부족, 건강보험개혁법 시행 차질 우려
- [EU] EMA, '13년 예산 2억3천만 유로 확정
- [프랑스] 프랑스 정부, 말기환자 안락사 허용 법안 검토
- [일본] 일 후생성, 줄기세포 배양·사용 2단계 규제

산업동향

- [미국] 미 FDA, 베링거인겔하임 '프라다사' 인공심장판막 환자 복용 금지
- [일본] 일 올림푸스, 후쿠야마현에 의료기기 공장 두 곳 증설
- [중양아] 벨라루스, '13년 하반기에 사상 처음 페이스 수술 시행
- [글로벌] 프랑스 로레알, 멕시코에 세계 최대 염모제 공장 준공

신규보고서

- [미국] 미국 의료 진단기술 시장 전망
- [글로벌] '12년 주목받은 10대 심장·뇌질환 연구

포커스

- '12~'20년 EU 이헬스 실천계획 1

정책동향

- [미국] 미국 1차 진료의사 부족, 건강보험개혁법 시행 차질 우려 5
- [미국] 미국, 근로자 압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연 75억불 5
- [미국] 미 소비자단체, FDA 조제약국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동 6
- [영국] 영 NICE, GSK '레블레이드' 국민건강보험 급여 권고 6
- [EU] EMA, '13년 예산 2억3천만 유로 확정 7
- [프랑스] 프랑스 정부, 말기환자 안락사 허용 법안 검토 7
- [일본] 일 후생성, 줄기세포 배양·사용 2단계 규제 8
- [일본] 일 아베 신임 총리, 신약 승인 절차 신속화 추진 8

산업동향

- [미국] 미 FDA, 베링거인겔하임 '프라다사' 인공심장판막 환자 복용 금지 9
- [일본] 일 올림푸스, 후쿠야마현에 의료기기 공장 두 곳 증설 9
- [글로벌] 일 미쓰비시케미칼, 의약품 캡슐업체 미 켈리캡스 인수 10
- [아시아] 인도 제약산업, '20년까지 1천억불 규모 목표 10
- [중동] UAE 타스위크, 모로코 헬스케어 시티 건설에 30% 수익 기대 11
- [중앙아] 벨라루스, '13년 하반기에 사상 처음 폐이식 수술 시행 11
- [미국] 미 스크립스연구소, 지방간 치료 신물질 'SR9238' 개발 12
- [캐나다] 캐나다 맥마스터대, "나이 들어도 면역체계 악화되지 않아" 12
- [EU] 스웨덴 카를린스카연구소, 비타민D 호흡기 감염 억제 효과 확인 13
- [미국] 미 화장품 업체 마크윈스, 피지션스 포뮬러 인수 13
- [글로벌] 프랑스 로레알, 멕시코에 세계 최대 염모제 공장 준공 14
- [글로벌] 프랑스 BPI, 페라가모 향수 미국시장 마케팅 독점권 확보 14

신규보고서

- [미국] 미국 의료 진단기술 시장 전망 15
- [글로벌] '12년 주목받은 10대 심장·뇌질환 연구 16

포커스

'12~'20년 EU 이헬스 실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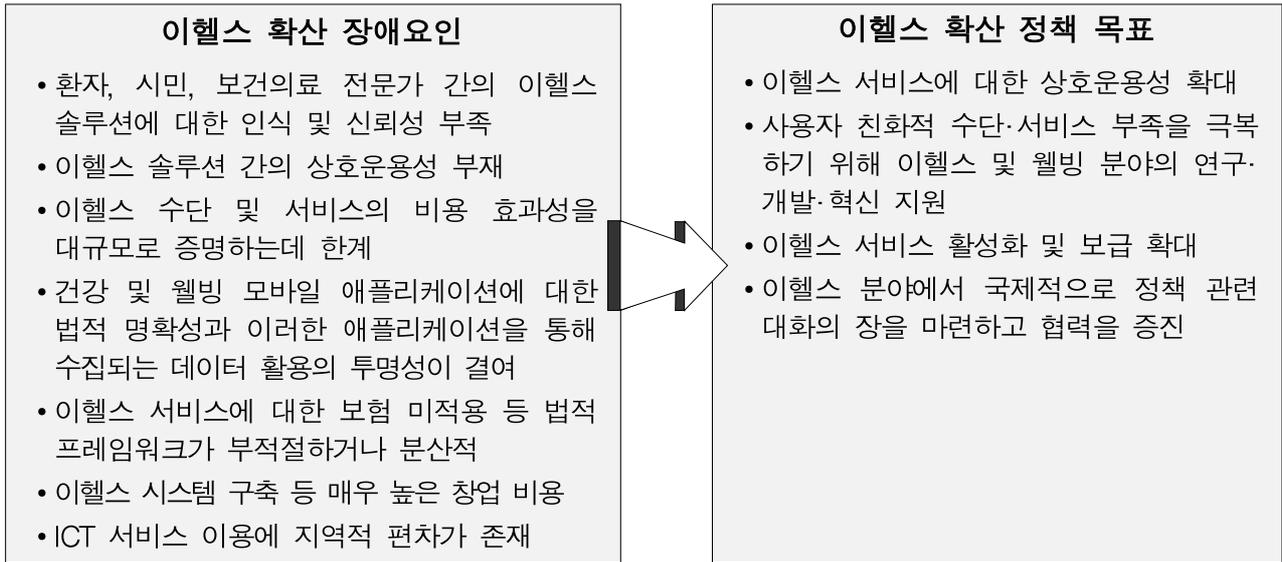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시장이나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웰빙 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 그동안 EU는 이헬스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본 자료는 EU가 '12년 12월 발표한 '12~'20년 이헬스 실천계획(eHealth Action Plan 2012-2020)'을 통해 EU의 이헬스 실천계획 수립 배경과 주요 내용을 고찰

□ 개요

- (배경)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 응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
 -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원격의료(telemedicine) 시장이나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웰빙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
 - *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10년 98억불 → '11년 116억불 → '16년 273억불로 확대될 전망(연평균 성장률 18.6%)
 - 이를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의료산업 혁신 활성화 등의 효과가 발생
- (정책 추진) EU는 '04년 처음으로 '이헬스 실천계획'을 채택한데 이어 최근 '12~'20년 이헬스 실천계획(eHealth Action Plan 2012-2020)'을 발표
 - EU는 '04년 이헬스 실천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헬스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왔으며, 회원국 역시 이헬스를 중요한 정책 사안으로 인식하고 epSOS*와 같은 대규모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 * epSOS(European Patients Smart Open Services)는 유럽 내 전자건강기록시스템(EHR) 간 상호운용성을 가진 서비스 인프라를 설계·구축·평가하는 사업으로 현재 EU 20개 회원국과 3개 비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13년 12월 사업 종료 예정
 - '11년 EU는 이헬스 네트워크(eHealth Network)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국가간 의료서비스에서 환자 권리 적용에 대한 지침'을 채택해 이헬스를 향한 회원국 간 협력의 발판을 마련

- 지난 12월 발표한 '이헬스 실천계획'은 '유럽 2020 전략'과 '유럽 디지털 아젠다'와 긴밀히 연계해 이헬스 시행의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이헬스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

<그림> '12~'15년 EU 이헬스 실천계획 개요



□ 주요 내용

- (상호운용성 확대) 이헬스 로드맵과 유럽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EIF)를 기반으로 법·조직·시맨틱(semantic)·기술 측면에서 이헬스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의 수립이 요구
- (법적 측면) 국가 간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시 보험 적용, 법적 책임, 보건의료 전문가 라이선싱, 정보 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는 '13년부터 이헬스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
 - * 정보 보호는 이헬스 신뢰성 구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보의 소유 및 통제, △연구나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 데이터 접근 및 재사용 요건 등이 중점 논의되어야 하며, 건강 및 웰빙 데이터 처리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정보 보호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
 - * EU집행위는 모바일 기기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 진단 등 건강 및 웰빙 애플리케이션이 급증하면서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효과성, 혁신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12년 관련 규제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출

- (조직적 측면) 회원국 행정기관 등의 조직들이 이헬스 상호운용성 확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가가 관건
 - * 실제로 조직적 측면에서 상호운용성은 국가간 이헬스 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관련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통합하고 상호 지원, 공동 행동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수단을 발굴하는 것을 의미
- (시맨틱·기술적 측면) 현재 유럽 및 국제 표준은 일반적인 ICT 솔루션에서는 상호운용성 보장이 가능하나 이헬스의 경우에는 상호운용성을 충분히 보장하기가 어려워 새로운 유럽 표준화 규정 기본틀 내에서 이헬스 상호운영성에 대한 요건들을 상세히 다루어야 할 필요
 - * '11년 지침에 따라 구축된 이헬스 네트워크가 국가간 환자 치료의 연속성과 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환자 기록 요약 등의 비한정적 데이터들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으로 EU집행위는 '12년부터 이를 지원
 - * 유럽 및 국제 수준의 표준과 요건 이외에도 이헬스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테스트·라벨링·인증 등의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15년까지 이헬스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프레임워크를 제안
- (연구·개발·혁신 지원) 중단기적으로는 사용자 중심적 모바일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설계에 중점을 두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발견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혁신 유도, 신속한 시제품 제작 지원, 자금 접근성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
 - * 정책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연구·혁신과 함께 이로부터 발생한 지식을 임상시험과 실증사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 파트너십 등이 요구
 - * 신제품, 확장성(scalability), 상호운용성, 효과적인 이헬스 솔루션 등에 대해 상업화 이전 정부구매나 공공혁신구매 등을 실시할 필요
 - EU는 '14~'20년 동안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의 '건강, 인구복지, 웰빙' 주제 하에서 이헬스 연구·혁신을 추진
 - 기업이 이헬스 및 웰빙 제품·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법·시장 여건의 조성도 중요한 과제로 EU은 중소기업 네트워킹, 이헬스 주간, 사업 모델 연구 등을 통해 경쟁력있는 이헬스 시장을 육성할 예정

<표> 호라이즌 2020의 이헬스 관련 연구·혁신 분야

- 첨단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 등 디지털 의학, 개인맞춤의학, 예방의학을 위한 ICT, 컴퓨터 과학, 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
- 첨단 분석·진단·의사결정 등을 위한 혁신적 수단과 방법
-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웹, 모바일 기술·애플리케이션 이외에도 의료보건 및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합하고 국민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수단
- 상호운영성과 환자 중심적 기술 등에 중점을 두고 사용자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이헬스 시스템·서비스

- **(이헬스 보급 확대)** 이헬스와 같은 ICT 서비스의 초기 투자 비용과 사업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을 설립하고, epSOS와 같은 대규모 시범사업의 결과를 유럽연결기금에 반영
 -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은 '07~'13년 동안 약 150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을 ICT에 배정한 바 있으며, '14~'20년 동안에도 혁신적 ICT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이헬스 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예정
 - 성공적인 이헬스 서비스를 위해서는 환자의 권한 강화(patient empowerment), 디지털 건강정보 활용 능력(digital health literacy)과 함께 환자의 자기 상태 관리, 예방의학을 통해 건강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 등이 중요
 - * 아직까지 일반인, 환자, 보건사회 전문가 등의 사용자들이 이헬스의 기회와 과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EU집행위는 '13년부터 시민들의 디지털 건강정보 활용 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 *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임상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간호 및 사회보장 종사자 등 전문가에 제공할 예정
 - 이헬스 서비스의 경쟁적 환경 조성을 위해 '14년부터 혁신적 이헬스 제품·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공통 지표를 적용
- **(국제 협력)** EU는 '13년부터 국내외 기관들과 협력해 이헬스 지표와 이헬스 영향 및 경제적 가치 평가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벤치마킹에 주력
 - 상호운용성 확대, 국제 표준 사용, ICT 기술 개발, 이헬스 효과성, 이헬스 혁신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국제 정책 논의도 시작

정책동향

미국 1차 진료의사 부족, 건강보험개혁법 시행 차질 우려

- 미국 의료집단관리협회(Medical Group Management Association : MGMA)는 오바마 행정부와 의료계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20년에 1차 진료의사(primary care doctor)가 10만명 부족,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경고
 - 1차 진료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1만2,840불로 전문의(38만4,467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사회적 위상은 낮으며, 근무시간은 길어 의대생들이 선택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
 - 졸업 후 1차 진료의사로 사회에 나서는 의대생들도 있지만 경력관리를 위해 임시로 선택하는 것일 뿐, 최종 직업으로 인식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
 - MGMA은 1차 진료의사가 부족하면 헬스케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개혁법 시행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와 업계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 [UPI, 2012.12.25]

미국, 근로자 암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연 75억불

- 미 애리조나대 연구팀이 '04~'08년 전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는 매년 330만 정도의 근로자가 암 진단을 받고, 이들이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노동생산성이 하락해 미국 경제에 연 75억불의 비용 손실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산
 - 연 75억불의 비용 손실은 미국 전체 헬스케어 지출 비용의 20%에 해당
 - 특히 유방암과 흑색종 등 특정 암은 다른 암보다 더 큰 비용 손실을 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유방암은 다른 암과 비교해 근무를 할 수 없는 날(disability days)이 55%, 병원 입원비용은 2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
 - 또 암에 걸린 근로자의 85%는 직원 5백명 이하 회사의 직원으로, 이들 회사의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보다 고혈압과 우울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에 걸리는 비율이 높고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

[US News and World Report, 2012.12.17]

미 소비자단체, FDA 조제약국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동

- 미국 워싱턴DC 소재 소비자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이 식품의약국(FDA)의 조제약국(compounding pharmacy)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공공보건 및 안전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피력
 - FDA는 매사추세츠 조제약국 뉴잉글랜드컴파운드링센터(NECC)에서 제조된 곰팡이 오염 스테로이드제가 요통환자들에 투여되어 19개주에서 뇌수막염 환자 6백명 이상이 발생하고 37명이 사망함에 따라 조제약국 규제 강화를 추진
 - * 조제약국이란 규격화된 조제약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약국을 의미
 - FDA는 조제약국을 개별 환자들의 니즈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는 ‘전통적(traditional)’ 조제약국과 일반 의약품을 제조하는 ‘비전통적(non-traditional)’ 조제약국으로 2원화한 뒤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
 - 그러나 퍼블릭 시티즌은 FDA의 이러한 방침이 현행 의약품 제도와 규정을 약화시키고, 조제약국에 대해 효능·안전성·품질·제품라벨 표기 등 전반에 걸쳐 부담만 가중시키게 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
 - 한편 퍼블릭 시티즌은 평소 제약업계에 비판적인 반면 정부에는 우호적인 성향을 보여와서 이번 반대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 [The Hill, 2012.12.18]

영 NICE, GSK ‘레볼레이드’ 국민건강보험 급여 권고

- 영국 국립보건연구소(NICE)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면역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 IPT) 치료제 ‘레볼레이드(Revolade, 성분명 : 엘트롬보팍올라민)’에 대한 급여를 국민건강보험(NHS)에 권고
 - NICE는 지난 '10년 고가품이라는 이유로 레볼레이드 급여 권고를 거부했으나 이번에 GSK가 할인가에 공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권고 거부를 철회
 - 할인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대 50%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
 - 영국에서는 현재 IPT 환자 3천5백여 명이 고통받고 있으며, 올해 GSK의 레볼레이드 매출은 1억4천만 파운드에 이를 전망 [Nursing Times, 2012.12.21]

EMA, '13년 예산 2억3천만 유로 확정

-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 EMA)은 '13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4.1% 증액된 2억3천160만 유로를 확정
 - 이 예산에는 EU지원금 3천920만 유로와 올해보다 3.8% 늘어난 의약품 승인 수수료 수입 1억7천980만 유로가 포함
 - 또 EMA는 '13년에는 신약 54건, 제네릭 20건, 희귀의약품 20건 등 100건에 달하는 의약품 승인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제약업체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 * '12년에는 신약 52건, 제네릭 39건, 희귀의약품 13건에 대한 승인이 신청
 - 이와 함께 EMA는 '13년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하고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면서 각종 평가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다짐

[PharmExec, 2012.12.20]

프랑스 정부, 말기환자 안락사 허용 법안 검토

- 프랑스 올랑드 정부가 말기환자들에 대한 안락사 허용 법안 제정을 검토
 - 안락사와 관련, 파리 5대학 연구팀은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들의 고통이 감소되도록 정부가 의사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3가지 권한을 사례로 제시

<3가지 권한>

권한	내용
1	환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요구했다면 상황이 악화되어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때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임종에 대비
2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환자 가족의 동의하에 생명연장 기구를 떼어내고 임종에 대비
3	환자가 단지 식물상태에 있을 뿐이라고 판단되면 생명연장 기구를 떼어내고 임종에 대비

- 연구팀은 죽음에서도 개인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말기환자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
- 올랑드 대통령은 안락사 허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프랑스 정부는 파리 5대학 연구를 참고로 안락사 관련 법안을 마련, 이르면 '13년 6월 의회에 제출할 계획

[France 24, 2012.12.19]

일 후생성, 줄기세포 배양·사용 2단계 규제

- 일본 후생노동성은 재생 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줄기세포의 배양과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결정
 - 후생성은 관련법을 제정해 환자에게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의료기관을 줄기세포의 배양과 사용의 2단계에 걸쳐 엄격하게 규제하고, 규제를 위반하는 업체에는 무거운 벌칙도 부과할 방침
 - 또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연구와 치료 목적에 관계없이 공통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설정할 계획
 - 이와 함께 줄기세포를 이식할 경우 방법과 부위 등에 일정 이상의 위험이 우려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치료 실적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줄기세포 치료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방침
 - 그러나 줄기세포의 배양과 사용을 엄격히 규제할 경우 ‘의사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고,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장기이식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과잉 개입을 우려하는 견해도 존재 [毎日新聞, 2012.12.23]

일 아베 신임 총리, 신약 승인 절차 신속화 추진

- 아베 신임 총리가 미국과 유럽 등 구미 선진국에 비해 일본에서는 난치병 치료제 승인 절차가 늦게 이루어져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신약 승인 절차를 신속히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
 - 아베 총리는 자신이 사용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승인이 서구에 비해 10년 정도 늦어 어려움을 겪었다는 개인적 체험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강조
 - * 아베 총리는 지난 '06년에도 총리직에 오른 바 있으나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을 이유로 1년 만에 총리직에서 사임
 - 또 총리는 환자의 의료접근을 확대하고 의료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 행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규제완화를 시행해 나갈 방침임을 피력 [時事通信, 2012.12.23]

산업동향

미 FDA, 베링거인겔하임 ‘프라닥사’ 인공심장판막 환자 복용 금지

- 미 식품의약국(FDA)은 인공심장판막 환자가 독일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의 항응고제 ‘프라닥사(Pradaxa, 성분명 :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를 복용하면 안된다고 경고
 - FDA는 프라닥사를 복용한 인공심장판막 환자군이 기존 항응고제 와파린(warfarin)을 복용한 환자군에 비해 뇌졸중·심장발작·혈전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유럽과 캐나다의 2상 임상시험 결과에 주목해 이 같이 결정
 - * 이 임상시험은 프라닥사군에서 색전성 사고 및 대출혈을 포함한 출혈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조기 중단
 - FDA는 천연 생체조직으로 제작된 인공심장판막이 이식된 환자에게 프라닥사 복용은 권고될 수 없다며 의사들에게 심장판막환자가 프라닥사를 복용할 경우 즉시 다른 약물로 교체할 것을 주문 [FDA, 2012.12.19]

일 올림푸스, 후쿠야마현에 의료기기 공장 두 곳 증설

- 일본 올림푸스는 의료기기 제조 거점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후쿠시마현 소재 아이즈와카마츠(会津若松) 공장과 사리고우(西郷) 공장을 증설할 방침
 - 아이즈와카마츠에는 94억엔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부지 8만3천㎡에 연면적 2만2천㎡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14년 착공해 '16년 준공을 목표
 - * 올림푸스는 지난 '09년 4월 아이즈와카마츠 의료기기 공장 A동을 건설한 데 이어 B동도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경기침체로 연기
 - 사리고우에는 86억엔을 투입해 기존 부지 7만6천㎡에 2만4천㎡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13년에 착공해 '15년 준공을 목표
 - 한편 이들 두 공장이 가동되면 모두 520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 [福島民報, 2012.12.22]

일 미쓰비시케미컬, 의약품 캡슐업체 미 퀄리캡스 인수

- 석유화학 업체인 일본 미쓰비시케미컬홀딩스(Mitsubishi Chemical Holdings)가 의약품 캡슐 제조·판매 업체인 미국 퀄리캡스(Qualicaps)를 '13년 3월까지 인수하기로 결정
 - 미쓰비시는 세계적 사모투자펀드(PEF)인 미국 칼라일그룹이 보유 중인 퀄리캡스 주식을 전부 매입하고 부채를 떠안는데 총 558억엔을 투입할 계획
 - 이번 인수는 미쓰비시 본업인 석유화학 사업의 수익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미쓰비시는 성장이 기대되는 의약품 사업을 확충해 사업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
 - 글로벌 캡슐시장은 1천억엔 규모(처방용 캡슐이 절반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글로벌 처방용 캡슐시장에서 퀄리캡스의 점유율은 20%를 상회
 - 한편 퀄리캡스는 '11 회계연도에 176억엔의 매출과 30억엔의 영업이익을 기록
- [RTTNews, 2012.12.25]

인도 제약산업, '20년까지 1천억불 규모 목표

- 인도 정부 산하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 : PC)는 오는 '17년까지 제약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로 늘려 6백억불 규모로 확대시키고 '20년까지는 1천억불 규모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
 - 또 '17년까지 제약산업에서 13억 루피(약 2천4백만불)의 의약품 수출과 '15년까지 150만, '18년 189만, '22년 246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목표도 제시
 - PC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우수제조관리(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GMP)를 비롯한 국제 제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조·유통·수출 등 부문에서의 R&D를 강조
 - 한편 현재 인도 제약산업 규모는 220억불 정도로 전 세계 13위로 평가

[Press Trust of India, 2012.12.25]

UAE 타스위크, 모로코 헬스케어 시티 건설에 30% 수익 기대

- UAE 부동산개발업체 타스위크 리얼 에스테이트 디벨로프먼트 앤 마케팅 (Tasweek Real Estate Development and Marketing)은 '13년부터 모로코 마라케시 (Marrakesh)에 헬스케어 시티를 건설
 - 2년 동안 총 4천만불이 투입되는 헬스케어 시티에는 2만1천m² 부지에 160병상의 민간병원과 40 객실의 부티크호텔 및 56동의 주거용 아파트 등이 세워지며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 현지 투자자에게 이미 16동이 매각
 - 타스위크는 헬스케어 시티 건설 프로젝트에서 30%의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 ROI)을 기대
 - * 타스위크는 자산 규모가 총 2억5천만불이며 ROI는 연평균 5~7% 수준
 - 타스위크는 모로코를 사업 확대를 위한 핵심 시장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모로코 정부는 북아프리카를 휩쓴 정치적 격변 이후 중동 국가로부터 헬스케어와 교육 등 부문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주력
 - * 한편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중 '11년 모로코의 10대 교역국에 속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일 [Arabian Business, 2012.12.20]

벨라루스, '13년 하반기에 사상 처음 폐이식 수술 시행

- 벨라루스는 '13년 하반기에 사상 처음으로 폐이식 수술을 시행할 계획
 - 현재 벨라루스에는 폐이식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2백명 정도 있으며, 벨라루스 의료기관들은 '13년 하반기에 15건의 폐이식 수술 시행을 예정
 - '12년 1~11월 벨라루스에서는 신장 이식수술 182건, 간 이식수술 50건, 심장 이식수술 19건 등 총 251건의 장기 이식수술이 시행된 바 있으나 폐 이식수술이 시행되기는 '13년 하반기가 처음
 - * 벨라루스 장기 이식수술 251건은 인구 1백만명당 25.5건으로 러시아(9.5건)와 우크라이나(2.2명)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
 - 한편 벨라루스 보건부는 '12년 1~10월 9천만불 상당의 의약품을 29개국에 수출했으며,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 국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 [Belarusian Telegraph Agency, 2012.12.27]

미 스크립스연구소, 지방간 치료 신물질 ‘SR9238’ 개발

- 미국 스크립스연구소(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 : TSRI) 연구팀은 지방간을 치료할 수 있는 신물질 ‘SR9238’을 개발했다고 화학생물학(Cheical Biology)지를 통해 발표
 - 연구팀은 지방간이 발생하도록 조작한 쥐들에게 고지방 먹이를 계속 공급하면서 한 달 동안 SR9238을 투여하자 쥐들이 지방간에서 회복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
 - 특히 간에서 지방을 생성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면서 지방 생산이 최고 90% 감소했으며, 콜레스테롤 생산에 관여하는 효소도 80% 감소하면서 혈중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SR9238이 간 활동을 촉진시키는 단백질인 LXR알파(LXRα)와 LXR베타(LXRβ)에 작용해 간에 축적된 지방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제거하기 때문으로 분석 [News Medical, 2012.12.20]

캐나다 맥마스터대, “나이 들어도 면역체계가 악화되지 않아”

- 캐나다 맥마스터대학 연구팀은 나이가 들어도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T세포 기능이 젊은이에 못지 않아 면역체계가 악화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공공과학도서관 온라인 학술지 플로스-패소젠(PLoS-Pathogen)을 통해 발표
 - 연구팀은 웨스트나일(West Nile), 사이토메갈로(cytomegalo), 엡스타인-바(Epstein-Barr) 바이러스 중 하나에 감염된 40세 이하, 41~59세, 60세 이상 3개 집단의 T세포 수와 기능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항하고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 유지 능력이 나이와 무관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
 - 또 현재 시판 중인 노인용 독감백신의 효과가 약한 이유는 T세포 반응을 유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며 T세포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 [US News and World Report, 2012.12.14]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비타민D 호흡기 감염 억제 효과 확인

-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Karolinska Institutet) 연구팀은 **비타민D에 호흡기 감염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영국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nal)에 발표
 - 연구팀은 최소 6주 이전에 호흡기 감염을 겪은 140명을 두 집단으로 나눠 각각 비타민D3 4천IU와 위약을 매일 1년 동안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실시
 - 그 결과 비타민D3 그룹은 호흡기 감염 발생률이 대조군에 비해 25% 낮았으며, 항생제 처방률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
 - * 이 실험은 대상자를 무작위로 분류한 뒤 누가 어느 집단에 속하는 지 대상자와 실험자 모두 알지 못하는 ‘이중맹(double-blind)’ 방식으로 진행
 - 한편 비타민D는 피부가 태양 자외선을 쬐면 체내에서 자연 합성되기 때문에 평소 햇볕에 적당 시간 노출이 필요 [Vitaminscouncil, 2012.12.22]

미 화장품 업체 마크윈스, 피지션스 포뮬러 인수

- 미국의 화장품 업체 **마크윈스 인터내셔널(Markwins International)**이 같은 미국의 **피지션스 포뮬러 홀딩스(Physicians Formula Holdings)**와 인수에 합의
 - 마크윈스는 피지션스 포뮬러 발행 주식 100%를 주당 4.90불 총 7천5백만 불에 매입하는 동시에 주당 3.5센트의 배당금도 지급할 계획
 - * 주당 4.90불은 지난 한 달간 피지션스 포뮬러 주가 가중평균치에 40%의 프리미엄을 덧붙인 가격
 - 마크윈스는 색조화장품과 화장품 액세서리 분야 글로벌 선도업체 중 하나로 **웨트앤와일드(Wet'n Wild)**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지션스 포뮬러**는 월마트와 타깃 등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미국 내 2만5천여 소매점에 일반 대중용 화장품과 스킨케어를 발매해 온 업체
 - 마크윈스는 이번 인수로 **피지션스 포뮬러측의 전통과 혁신성을 활용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충하고 소비자 중심적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면서 일반 대중용 화장품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

[NASDAQ, 2012.12.12]

프랑스 로레알, 멕시코에 세계 최대 염모제 공장 준공

- 프랑스의 로레알그룹(L'Oréal Group)이 멕시코 산루이스 포토시(San Luis Potosi)주의 공업도시 비야 데 레예스(Villa de Reyes) 소재 제2 물류 산업단지 3만2천m² 부지에 세계 최대 염모제 공장을 준공
 - 신규 공장 설립은 향후 10년간 10억명의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 영역 별로 생산 분야를 특화한다는 로레알그룹 글로벌 전략의 일환
 - * 신규 공장 설립에는 1억불이 투입되었으며, 로레알은 이 공장에서 4백명의 정규 근로자와 8백명의 간접 근로자(indirect worker)를 고용할 계획
 - 로레알은 신규 공장에서 '13년 1억 유닛(unit), '14년 2억1천만 유닛의 염모제를 생산해 세계 최대의 염모제 생산 공장으로 만든다는 방침
 - 로레알은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멕시코의 지정학적 위치에 주목, 궁극적으로 멕시코 공장에서 총 4억 유닛의 염모제를 생산, 북미 및 중남미 시장 공급을 전담시키겠다는 방침 [CosmeticsDesign-Europe, 2012.12.12]

프랑스 BPI, 페라가모 향수 미국시장 마케팅 독점권 확보

- 프랑스 화장품업체 보떼 프레스티지 인터내셔널(Beaute Prestige International : BPI)의 미국 현지법인이 이탈리아 페라가모 파퓌스(Ferragamo Parfums)와 비공개 금액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
 - 이번 제휴로 BPI는 페라가모 파퓌스가 제작한 향수의 미국시장 마케팅 독점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제휴는 '13년 4월부터 유효
 - BPI는 일본 시세이도가 브랜드 향수 부문 강화를 위해 지난 '92년 설립했으며, 페라가모 파퓌스는 '97년 설립 이래 브랜드 향수를 개발·공급
 - * '01년부터 페라가모 파퓌스는 100% 지분을 보유한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그룹(Salvatore Ferragamo Group)이 제품개발에서 시장공급까지 전과정을 직접 지휘
 - 현재 페라가모 파퓌스는 총 20종의 남녀 향수를 시판 중으로, 미국시장에서는 블루밍데일스(Bloomingdale's), 로드 앤 테일러(Lord & Taylor), 메이시(Macy's) 등 주로 고급 백화점과 전문점에서 발매 [CNBC, 2012.12.19]

신규보고서

미국 의료 진단기술 시장 전망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미국 BCC 리서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화하는 미국 시장에서의 새로운 진단기술(Emerging Diagnostic Technologies in the Changing U.S. Market)’ 보고서를 '13년 1월에 발매한다고 발표
 - 보고서는 미국의 최신 의료 진단기술 시장 규모가 '11년 8억8천만불에서 '12년 12억불 정도로 증가하는 데 이어 향후에도 연평균 20.9%의 고성장을 지속, 오는 '17년에는 30억불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보고서는 의료 진단기술 시장 세부 분야를 크게 진단영상(Diagnosis Imaging), 원격진단(Telediagnostics), 정보기술(IT)로 구분한 뒤 다음과 같은 전망을 제시

<미국 진단영상 시장 전망>

	'12년(불)	'17년(불)	연평균 성장률(%)
진단영상	8억3천450만	23억	23
원격진단	2억6천900만	4억7천100만	11.9
정보기술	1억900만	1억5천만	6.7

- 특히 초음파, MRI, CT 등 진단영상 부문은 '11년 사상 최대인 58.5%의 진단기술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데 이어 '17년에는 72.9%로 확대될 전망
 - 반면 '11년 시장점유율 27.3%, 11.6%로 각각 2, 3위를 차지한 원격진단과 정보기술은 '17년까지 점유율이 각각 14.6%, 4.7%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진단영상, 원격진단, 정보기술 이외 분광학(1.4 → 2%), 바이오에세이(0.7 → 1.8%), 기타(0.6 → 4%)는 점유율이 증가할 전망
- 한편 보고서는 향후 5년 간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신 제품으로 광간섭단층촬영기(optical coherence tomography : OCT), PET/MRI(positron emission tomography/magnetic resonance imaging), 디지털 유방단층촬영(breast tomosynthesis), 양자점(quantum dots) 등을 거론

'12년 주목받은 10대 심장·뇌질환 연구

- 미국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는 미국뇌졸중학회(American Stroke Association)와 공동으로 '12년에 주목받은 10대 심장·뇌질환 연구(2012 top 10 advances in heart disease and stroke research)' 자료를 같은 해 12월에 발표

<'12년 10대 심장·뇌질환 연구>

	연구	개관
1	심폐소생술 시간 연장	심폐소생술 실시 시간이 길수록 자발적 순환재개를 및 생존 퇴원율이 상승
2	비박동 심근세포로 박동 심근세포 제작	비박동(non-beating) 심근세포를 이용해 박동(beatng) 심근세포를 제작하는 실험이 성공, 심장질환으로 기능이 손실됐거나 상해된 심근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
3	심장생검 세포치료	심장생검(heart biopsy)을 통해 자가유래 조직세포를 치료할 경우 심장 기능이 개선되고 심근경색 병변이 감소
4	신장신경 절제술	치료저항성 고혈압 환자에는 카테터를 이용한 신장신경 절제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음이 확인
5	소아이식형인공심장 이식	소아이식형인공심장(ventricular assist device)이 심장이식이 요구되는 소아 환자의 생존기간을 크게 연장시킬 수 있음이 확인
6	가당음료 섭취 제한	가당음료(sugary drinks)에 함유된 칼로리가 소아 건강에 해를 미칠 수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
7	심장초음파를 이용한 류마티스성 심장질환 검사	류마티스성 심장질환(rheumatic heart disease) 검진 때 심장초음파가 기존 청진기 검사에 비해 3배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
8	뇌혈관속 치료 장치	새로운 혈전 회수 장치인 솔리테어(SOLITAIRE)와 트레보(TREVO)가 기존 메르시(MERCI)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
9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7가지 요인	'금연'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의 생활습관을 갖추는 것과 함께 '체질량지수(BMI)'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을 관리할 경우 심혈관 건강을 유지
10	당뇨병 환자 심혈관 재건 기술	당뇨병 환자 심혈관 재건을 위한 시술에서 관상동맥우회(Coronary Artery Bypass) 시술을 할 경우 약물코팅스텐트(Drug-Coated Stents) 시술을 할 때보다 사망 및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률이 감소